

3) 담수어류

『중평지』 토산조에는 조기(石首魚), 송어(秀魚), 농어(鱸魚), 오징어(烏賊魚), 문어(文魚), 병어(兵魚), 낙지(絡締), 전복(鰓), 도루묵(銀口魚), 굴(石花), 대하(大蝦), 홍합(紅蛤), 자하(紫蝦), 게(蟹), 해삼(海參) 등 86개 품종이 묘산도·시중당·하이사리에서 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 홍어(洪魚), 마어(麻魚), 전어(箭魚), 실어(失魚), 추어(醜魚), 황어(黃魚), 하어(鰕魚), 죽어(竹魚) 등과 희귀어인 설어(舌魚), 가좌미(加佐味) 등은 특기할 만하다. 진상품으로 기록되어 있는 어류로서는 건수어(乾首魚), 생은구어(生銀口魚), 건조어(乾鳥魚) 등이 있다.

『봉화산공원의 자연환경과 이용객실태 및 보전대책』¹⁾을 보면 동천과 이사천에는 총 2강, 9목, 18과, 38속, 52종의 어류가 있다. 그리고 담수와 해수가 접하는 지역에서 담수어류가 아닌 전어, 무태장어, 송어, 가숭어, 농어, 문절망둑, 짱뚱어, 강도다리, 서대기 등이 나타나거나 잡히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이사천·보성강 및 조계산의 담수어에 관한 연구』²⁾를 보면 이사천과 보성강의 어류는 50여 종에 달하는데 여기에도 이사천 기수구역에 서식하는 칠성장어, 전어, 참마자, 농어, 송어, 가숭어, 문절망둑, 짱뚱어, 강도다리, 서대기 10종류가 포함되어 있다. 이사천에서는 갈겨니, 피라미, 버들치, 기름종개 등이 우세하고 보성강(낙수 부근)에서는 피라미, 갈겨니 및 줄납자루 등이 우세하다. 조계산 계류에서는 붕어, 눈동자개, 돌고기, 버들치, 피라미, 갈겨니, 기름종개, 미유기, 뱀장어, 파가사리, 꺾지, 동사리 12종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순천만에 유입되는 동천과 이사천의 어류상』³⁾을 보면 동천과 이사천이 합류하는 기수역에서 채집한 것들을 포함하여 잉어, 붕어, 모래무치, 버들메치, 물개, 긴물개, 모샘치, 돌고기, 버들개, 버들치, 동개버들치, 동개버들개, 피라미, 갈겨니, 줄납자루, 묵납자루, 납자루, 납지리, 각시붕어, 참마자, 기름종개, 수수미꾸리, 미꾸라지, 미꾸리, 문절망둑, 말뚝망둥어, 짱뚱어 등 3과, 18속, 26종류가 보고되어 있다. 전 지역을 통하여 피라미와 갈겨니가 우점종이었으며 저서성어류인 모래무치가 상당한 강세를 보였다고 하였다. 위의 내용을 보면 동천과 이사천 어류는 52종, 이사천과 보성강 어류는 50종으로 보고되었는데 담수어 종류가 크게 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암댐·이사천댐 건설과 순천의 도시화에 따른 환경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어류의 종다양성 보존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보성강 유역의 생태계 변화에 따른 어류군집변화』⁴⁾와 『보성강댐 수계의 어류상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⁵⁾를 보면 보성강수계 주암댐지역의 어류는 총 10과, 30속, 42종으로 이 중 12속, 16종이 한국 특산종이었고, 잉어과가 30종류로 70% 였다. 전 지역에서 우점종은 피라미와 갈겨니로 조사되었고 치리와 떡붕어가 처음으로 채집되었으며, 정수역을 선호하는 누치·버들메치·떡붕어·치리 등의 종들이 증가하였다.

1) 김종홍·조현욱, 『봉화산공원의 자연환경과 이용객실태 및 보전대책』, 『담수어 분야』, 순천대학 농업과학연구소, 1988, 158쪽.

2) 최기철·전상린, 『이사천·보성강 및 조계산의 담수어에 관한 연구』, 『한국자연보존협회 조사보고서』 제11집, 1977, 153~163쪽.

3) 조현욱·한원동·김종홍, 『순천만에 유입되는 동천과 이사천의 어류상』, 『순천대학 논문집(자연과학)』 제10집, 1991, 137~144쪽.

4) 김종홍·조현욱·한원동·이완옥, 『보성강 유역의 생태계 변화에 따른 어류군집변화』, 『한국환경생물학회지』 제11집 제2호, 1993, 154~160쪽.

5) 김종홍·한원동·이완옥·이진원, 『보성강댐 수계의 어류상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순천대학 기초과학연구지』 제5집, 1994, 37~45쪽.

